

자연학습장으로서 제주도 세계지질공원의 활용

박정웅(PhD., 송문고, 한국지구과학교사협회장)

화산이 우리에게 남겨준 최고의 선물. 우리 땅 제주도.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제주도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 세계적인 테마공원, 세계적인 자연학습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자연환경의 높은 가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1980년 중반 이후 남쪽 해안에 있는 응회환/응회구가 알려지면서... 그런데 UNESCO의 생물권보호지역(2003), 세계자연유산(2007) 지정에 이어 2010년 세계지질공원 인증으로 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제주도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자이자 교육자의 입장에서 제주도의 소중한 자연유산을 훌륭한 교육적인 자료 즉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1) 제주도는 대단히 중요한 화산 지질과 지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화산체의 구조와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 거의 완벽한 지형과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2) 다양한 지질, 지형, 암석이 각종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초등학교 과학(3, 4학년), 중학교 과학 1, 고등학교 과학, 지구과학 1, 2,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지리 등. (3) 응회환/응회구의 생성과정을 보고한 세계적인 화산지질학의 표식지입니다. 10여편의 국제적인 논문(손영관)과 책(제주특별자치도, 지질자원연구원 등). (4) 국내 대표적인 가족 여행지, 학생들을 위한 수학여행지이자 자연테마공원입니다. 제주도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화산지형과 지질(퇴적환경과 화석 관찰)을 공부하기 위한 좋은 자연학습장입니다.

현재 세계지질공원은 9개 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더 많은 지질명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지질명소를 세계지질공원 지구로 확대해야 합니다. 자연탐사를 하는 학생들이 재미있어하는 학습장(송악산, 갯깁, 용눈이 오름, 악마의 정원 등)과 화산체 하부의 지질을 알 수 있는 곳(별도봉 해안, 신산리 해안)에 탐방로 설치와 보존이 필요합니다. 서귀포층, 송악산 화산체는 훼손을 막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제주도 지하의 세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시추공) 전시 및 다양한 지질트레일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양한 규모와 목적에 따른 제주도 방문자[수학여행으로 방문한 학생, 자연탐사활동을 위해 방문한 학생, 개인이나 가족 여행, 제주올레 걷기 등]를 위한 준비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제주도 지질과 지형을 설명할 수 있는 안내자 양성(지역 주민, 과학교사 연수)과 학생용 탐사 자료(안내서 및 학습노트) 개발 및 배부(저가 판매), 외국인을 위한 안내자료 개발(영어, 일어, 중국어), 지질공원에 지질학 전공자(지질유산해설사) 배치, 지질학자와 함께 하는 제주도 탐사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질관광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수학여행 방문을 지양하고 소규모 탐방 프로그램(20~40명 규모)을 권장하고 편의시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